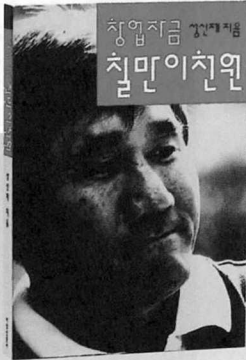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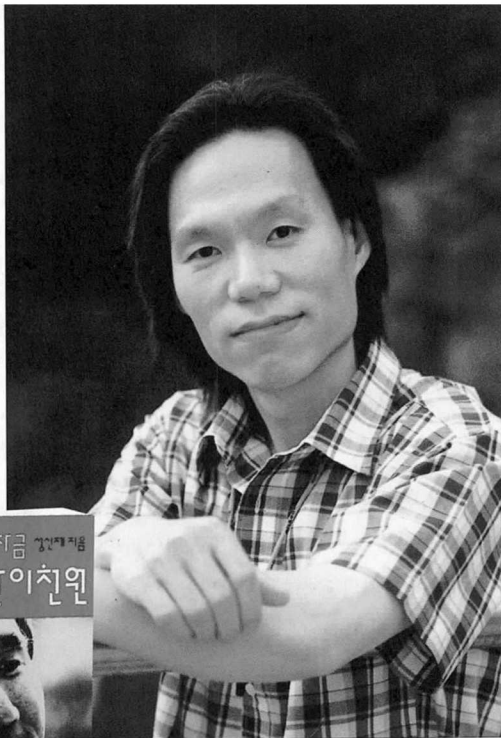


내서가의책한권

삶에 대한 성실함 깨우쳐준 '진필' 자서전

영화감독 문홍식씨가 뽑은
성신제의 《창업자금
칠만이천원》



“삶에 대한 성실함, 이 책은 이거 하나예요. 일류대를 나와
음식배달과 가게청소를 선택한 지은이가 한국인들의 입맛을
빼앗은 비결이 뭔지 납득하고도 납읍니다.”

영화감독 문홍식씨(33). 처음 듣는 이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씨는 바로 며칠 전 처녀작 <선영의 편지>를 끝마친 신예다. 서커스단 장에 곡에서 일가족의 슬픈 삶을 그린 이 작품은 30분 분량의 단편영화지만 총 1억5천만원을 들인 고예산 영화다. 문씨는 제작단계에서 집까지 팔아치워 철거 대상 무허가집에서 살아왔는데, 영화가 끝나자 철거명령이 떨어져 현재 처갓집에 얹혀 지낸다.

그런 것쯤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가 서가에서 뽑은 책은 《창업자금 칠만이천원》(성신제, 여성신문사)이다. 1984년 미국의 외식업체인 '피자 핫'을 한국에 들여와 성공시킨 성신제씨의 자서전인 이 책은 문씨에게 어떤 문학작품보다 더한 감동을 안겨줬다. 그런데 기업인의 자서전이란 게 자화자찬으로 도배된 뻔한 내용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다.

“제가 자서전 대필을 해봐서 아는데, 이 책은 '진필' 이예요. 지은이는 일류대 정치학과를 나온 수재죠. 그런 그가 남 뒤처다꺼리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는 과감하게 음식 배달과 가게청소를 선택하거든요. 삶에 대한 성실함, 이 책은 이거 하나예요. 된장밖에 모르는 한국인들의 입맛을 빼앗은 비결이 뭔지 납득하고도 납읍니다.”

문씨가 이 책에 각별한 애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 '7만2천원' 때문이기도 하다. 문씨가 돈을 좇아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을 때, 그의 손에는 단돈 12만원이 있었다. 부자 텔런트가 꿈이었던 문씨는 우여곡절 끝에 극단 '민예극장'에 입단했는데,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나와 오전엔 연기연습하고 오후엔 교보문고에 가서 살았다. 연기자도 '이론'이라는 비밀 언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7개월간 지속된 가난하지만 풍성한 이 '읽기'로 그는 희곡작가로 변신했다. 몇편의 연극대본을 쓰고 연출도 했다. 그러다가 이번엔 영화에 손을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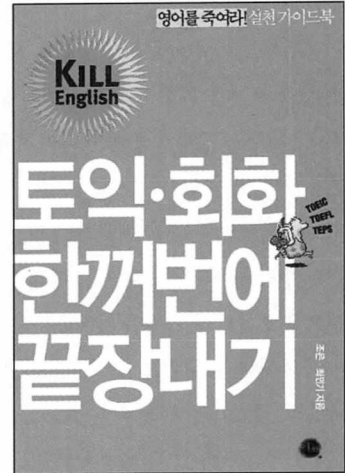
“빈털털이에 가까운 내가 영화를 한다... 망설여지더군요. 그때 이 책이 결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은이의 7만5천원에 비하면 부자고, 나이도 젊은 내가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배우들은 1991년 텔런트로 활동하던 시절 알던 인맥을 동원했고, 카메라는 <파이란>의 촬영감독 김영철씨가 맡아줬다. 하지만 출연료 등은 철저히 계산했다. 편법으로 성공하기 싫어서다.

“TMF 이후 실직률이 높아졌지만, 그게 모두 힘든 직종을 외면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를까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적극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강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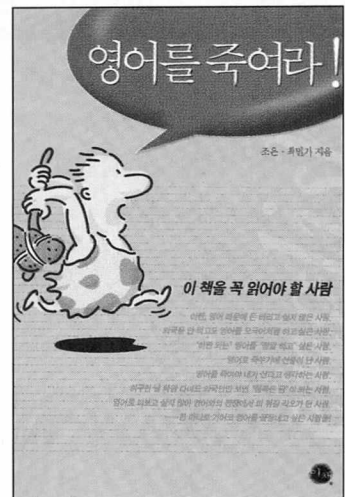
영어 정복의 왕도(王道)
KILL ENGLISH 시리즈

토익·회화 한꺼번에 끝장내기



조은(코넬대학 박사과정 수료, 영어교육전문가)
최민기(출판기획전문가) 공저
값8,500원 (336면, 신국판)

영어를 죽여라!



조은/최민기 공저
값7,000원 (224면, 신국판)

수 기 과목과 원시인이 제시하는 <듣기 읽기
공 모 병행학습법>과 <샘플회화서>로 토익
과 회화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신 분의
수기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
서출판 이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511-1891, 512-1891 fax: 511-1244
e-mail:yiche7@dreamwiz.com